

## 소방관 추모공간을 위한 공간 시나리오 설계 연구

### A Study on the Spatial Scenario Design of Firefighter Memorial Space

○김 대 현\*      김 동 규\*\*  
Kim, Dae-Hyun      Kim, Dong-Gyu

#### Abstract

Firefighters sometimes lose their lives during fire suppression or from post-accident complications, yet memorial spaces dedicated to them remain insufficient.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scenario-based architectural design for firefighter remembrance, rather than conventional parks or towers. The methodology involves deriving spatial keywords, organizing scenarios, and establishing layout strategies. Light is actively employed to create atmosphere, and memorial walls are placed along circulation paths. Through scenarios, the meaning of remembrance is emphasized, while light allows visitors to experience emotions of tribute within the space. The study presents a design that conveys remembrance through spatial experience and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facilities commemorating firefighters.

키워드 : 공간, 시나리오, 추모 공간, 소방관, 건축 설계

Keywords : Space, Scenario, Memorial Space, Firefighter, Architectural Design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화재 진압 중 사고, 혹은 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안타까운 소방관이 순직하는 상황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관을 위한 추모 공간은 국내에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소방관 추모를 위한 시설을 공원이나 탑으로 기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나리오로 구성된 공간 설계안 도출을 목표로 한다.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추모 공간을 위한 공간 시나리오를 제안하는 것에 범위를 둔다. 연구 방법으로 첫 번째는 공간 키워드 도출 후 시나리오를 정리하고, 두 번째로는 도출된 공간을 배치하기 위한 공간 전략을 구성하고, 마지막으로 시나리오를 공간으로 구현한 설계에 적용하였다.

#### 2. 본론

##### 2.1 선행 연구 고찰

추모란 ‘죽은 자를 그리워하며 기억하는 행위’를 뜻한다. 추모 공간은 기억 행위를 구체화하는 공간적 장치로서

사회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기억해야 할 것들, 혹은 사건에 관한 시간의 흐름을 공간적으로 연결해 죽음을 맞이한 이들과 살아 있는 이들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추모 공간은 살아 있는 이들에게 단순히 기억을 환기하는 것을 넘어, 상실의 아픔을 경험한 이들에게 위로와 치유를 제공하는 공공적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이러한 공간은 남은 사람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돕는 동시에 사회적 의미를 담은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

과거의 추모 공간은 주로 봉안당의 형태였다. 하지만 현대 사회 변화에 따른 문제점으로 인해 점차 추모 공원과 수목장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추모 공원과 수목장 등의 형태들은 현대적 추모의 기억을 만나는 장소의 역할, 즉, 체험과 참여의 기능이 낮다. 기존의 추모 공간들은 상징적이고 의식과 기념을 중시하는 형태로 존재한다.

현재 국내에 있는 소방관 추모 공간은 대부분 추모 공원이나 탑과 같은 방식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국내의 소방관 추모 공간은 기억을 위한 장소일 뿐, 상실의 아픔을 경험한 이들에게 위로와 치유를 위한 공간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소방관 순직을 사건, 기억, 시간의 흐름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기억이 만나며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은 소방관의 추모를 경험하며 더욱 강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내에도 순직한 소방관을 기억하며 공간을 통해 느끼고 기억에 동참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 경상국립대학교 건축학과 학사과정

\*\* 경상국립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 건축사(대한민국/독일)

(Corresponding author : School of Architectur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dgkim@gnu.ac.kr)

## 2.2 사례 분석

표 1. 국내 소방관 추모공간 유형별

| 유형  | 수 | 위치                                         |
|-----|---|--------------------------------------------|
| 탑   | 1 | 중앙소방학교                                     |
| 조형물 | 4 | 강원도 태백, 울산 안전체험관, 전북 119안전체험관, 부산 119안전체험관 |
| 공원  | 1 | 서울소방학교                                     |

국내 추모 공간은 총 6곳에 있으며, 소방학교에는 탑이나 공원, 그 외 안전 체험관에는 조형물 형식으로 조성되어 있다. 추모를 건축 공간으로 조성한 곳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표 2. 사례 분석

|   | 사례                                    | 키워드           | 이미지                                                                               | 특징            |
|---|---------------------------------------|---------------|-----------------------------------------------------------------------------------|---------------|
| 1 | Minnesota Fallen Firefighter Memorial | 기둥과 벽, 빛, 구조물 |  | 빛이 공간에 떨어지게 함 |
| 2 | 서울소방추모공원                              | 추모 벽, 동선, 벤치  |  | 개방적이지만 순례적 동선 |

소방관 추모 공간에서의 추모 방법 및 공간 키워드를 도출하기 전, 국외와 국내 추모 공간의 서로 다른 유형 사례 2개를 표 2와 같이 분석하였다.

사례 1은 소방관 추모를 위한 파빌리온의 형태이다. 사례 1에서 사용된 추모 방법은 파빌리온 가운데 원형의 천장이 있으며, 천장에서 떨어지는 빛은 그 아래에 어린이를 구출하는 소방관의 동상을 비춘다. 파빌리온 지붕을 지탱하는 86개의 가느다란 기둥에는 순직한 소방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파빌리온 외부에는 나무 표면을 불에 태워 마감 처리한 벤치가 있고, 추모를 위한 낮은 벽은 사색의 장소를 제공한다. 또한, 파빌리온 지붕과 기둥은 코르텐강판이 서서히 부식되며 화재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사례 2는 소방관 추모를 위한 공원의 형태이다. 공원은 개방적이지만, 동선은 순례 행위와 같은 흐름을 지니고 있으며, 바닥 재료를 달리하여 순례 행위를 유도한다. 소방관의 이름이 기록된 추모 벽이 존재하여, 묵념의 장소로 이용된다. 사례 1과 사례 2 모두 재료의 특징을 이용하여 소방관 순직에 관한 체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였다.

## 2.3 공간 시나리오

공간 시나리오는 사용자가 장소를 경험하게 되는 감정적, 물리적 흐름을 단계적으로 다루는 것이다. 장소의 경험은 사용자가 공간을 이동하며 건축 요소와 상호 작용하며 형성되는 일종의 연속적 체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시각적 인식만으로는 완전히 이해되기 어렵기 때문에, 공간 시퀀스를 통한 분석이 효과적이다. 공간 시퀀스는 순서, 배치, 구성 요소, 시간적 흐름을 포함하며, 내부와 외부 공간이 일정한 패턴과 연속성을 갖도록 설계될 때 사용자는 공간의 맥락과 흐름을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다. 계단, 창, 문, 복도와 같은 건축적 요

소는 시선과 동선의 흐름을 유도하여 장소 경험을 강화한다. 요소와 요소 사이에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통해 경험한 공간에 관한 사색을 유도하며 흐름과 경험을 효과적으로 강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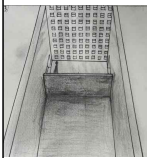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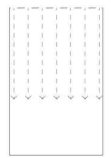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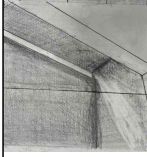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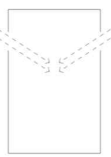
## 3. 건축계획

### 3.1 건축 컨셉 시나리오

소방관 추모 공간의 건축 컨셉은 소방관 사망 비율에 근거하여 자살, 돌연사, 구조, 교통사고 4가지 시나리오로 구성하였다. 각각의 시나리오를 공간화하고 경험하기 위한 매개체로 빛을 요소로 활용하였다. 공간에서 빛은 그림자와의 대비를 통해 집중을 유도하여 동선을 이끌고, 공간에 입체감을 부여할 수 있다. 시나리오의 공간화를 위해 빛을 공간에 다양하게 유도함으로써 시나리오마다 다르게 활용되는 빛을 통해 느껴지는 감정도 다르게 유도하였다.

표 3의 네 가지 시나리오 중 첫 번째 시나리오인 ‘스스로 목숨을 끊는 순직의 공간’에서는 높은 천장에 좁고 많은 천창을 두어 답답한 빛이 공간으로 들어오게 하여 소방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의 답답한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하였다. 두 번째 시나리오인 ‘갑작스러운 순직의 공간’에서는 불규칙한 업무와 삶의 패턴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순직한 소방관을 기억하기 위해, 높은 벽면의 고층창에서 불규칙한 사선의 빛이 들어오도록 공간을 조성하여 불규칙한 빛으로 업무의 스트레스를 느끼도록 하였다. 세 번째 시나리오로 ‘구조하며 발생하는 순직의 공간’에서 소방관은 사람을 구조하는 역할과 동시에 자신을 구조해야 하는 처지의 한 줄기의 빛과 같은 공간을 나타내기 위해 높은 천장에 원형 천창을 두어 한 줄기의 강한 빛이 공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였다. 네 번째 시나리오 ‘교통사고로 인한 순직의 공간’에서는 어떤 사고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긴장감과 갑작스러운 환경에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기 위해 천장과 벽 사이에 빛이 사선으로 들어오는 천창을 두어 강한 빛이 시간에 따라 이동하며 공간이 여러 모습을 띠도록 하여 교통사고의 긴장감을 공간에서 느낄 수 있게 하였다.

표 3. 네 가지 시나리오 공간

| 시나리오              | 채광 스케치                                                                               | 단면                                                                                    | 키워드              |
|-------------------|--------------------------------------------------------------------------------------|---------------------------------------------------------------------------------------|------------------|
| 스스로 목숨을 끊는 순직의 공간 |  |  | 답답하게 들어오는 빛      |
| 갑작스러운 순직의 공간      |  |  | 불규칙하게 들어오는 사선의 빛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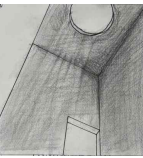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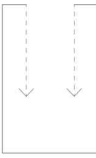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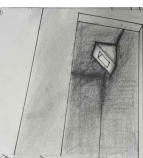
|                           |                                                                                   |                                                                                   |                                       |
|---------------------------|-----------------------------------------------------------------------------------|-----------------------------------------------------------------------------------|---------------------------------------|
| 구조하며<br>발생하는<br>순직의<br>공간 |  |  | 한 줄기의 빛                               |
| 교통사고로<br>인한<br>순직의<br>공간  |  |  | 강한 빛이 시간에<br>따라 이동,<br>공간을<br>변화시키는 빛 |

표 4. 소방관 순직 비율

| 구분      | 사망자 수 | 비율    | 세부 설명                |
|---------|-------|-------|----------------------|
| 자살      | 112명  | 65.1% | 직무 스트레스, PTSD, 우울증 등 |
| 화재 진압   | 22    | 12.8% | 질식, 붕괴, 폭발 등         |
| 항공 사고   | 13    | 7.6%  | 헬기 추락 등              |
| 구조 활동   | 9     | 5.2%  | 산악, 수난 구조 중 실족, 익사   |
| 교통사고    | 7     | 4.1%  | 소방차 전복, 도로 사고        |
| 훈련 중 사고 | 5     | 2.9%  | 고공 훈련 중 추락           |
| 안전사고    | 4     | 2.3%  | 감전, 협착               |
| 총합      | 172   | 100%  | 2010~2021년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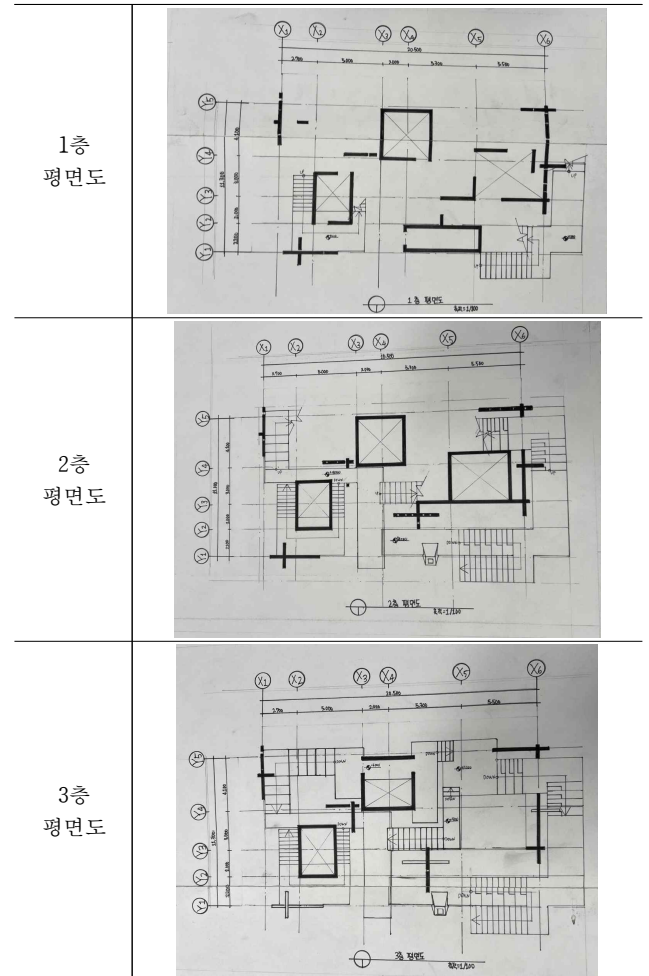
### 3.2 시나리오의 배치

4개의 시나리오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순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관람객이 자유롭게 추모 공간을 경험하도록 공간을 배치하였다. 기억하는 행위를 공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추모 공간과 추모 공간 사이에 건축 요소와 함께 구성하였다.

시나리오에 따른 추모 공간 구성에 집중하고자 특정 대지를 선정하지 않고, 2,400 x 1,200인 가상의 대지에 4개의 시나리오를 자유롭게 배치하였다. 1층에는 각 공간에 자유롭게 다니고,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였다. 그 후 공간마다 레벨 차이를 두고, 하나의 추모 공간에 두 가지 레벨을 계획하여 공간을 높이에 따라 다양하게 경험하여 공간의 깊이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층부터 네 개의 시나리오 공간을 연결하는 복도를 만들어 방문자가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고, 길 사이에 순직 소방관의 이름을 볼 수 있는 추모의 벽을 만들었다. 이는 각 시나리오 공간을 연결하는 길이자 공간 사이에서 사색할 수 있는 장소이다.

레벨이 다른 시나리오 공간을 연결하는 계단에는 앉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계단이 통로이자 추모의 벽을 앉아 바라보며 사색하는 추모의 공간을 계획하였다. 방문자가 추모의 순서를 선택하고, 공간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추모 동선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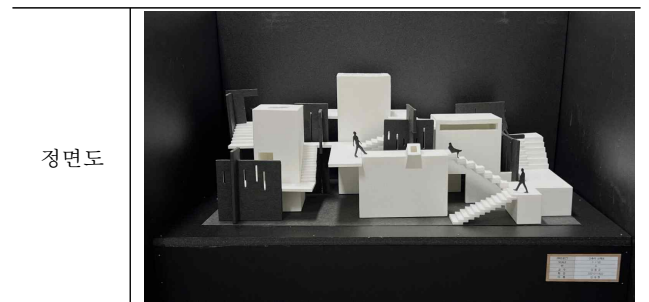
표 5.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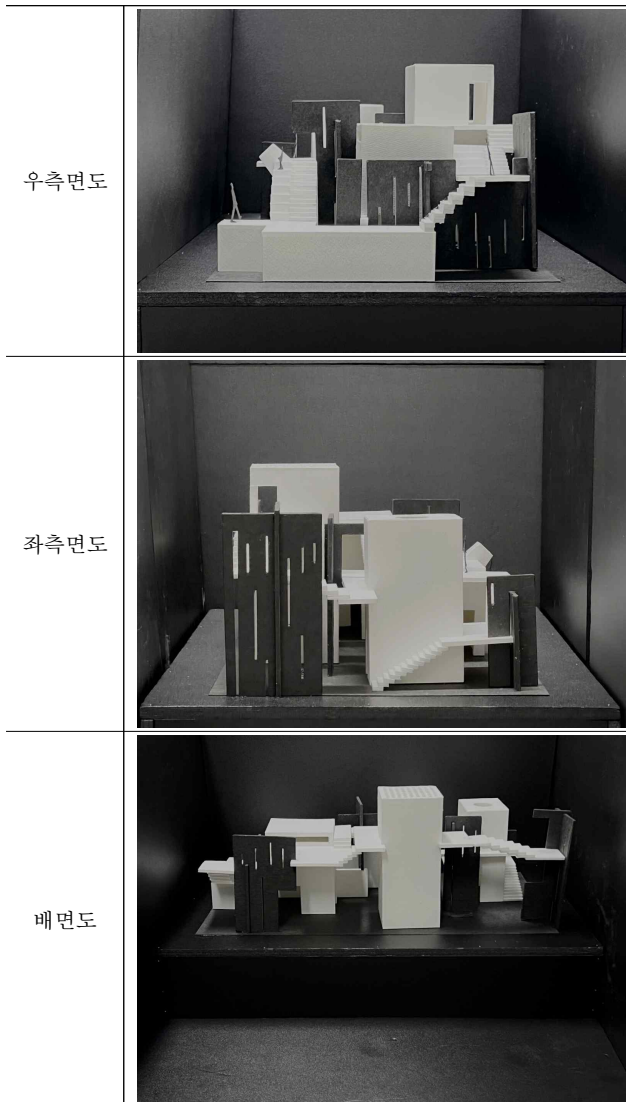


### 3.3 건축 모형

건축 모형은 재료의 차이를 반영하였다. 추모의 벽은 산화가 가능한 코르텐 강판을 고려하였고, 추모 공간은 추모를 위한 빛을 강하게 느낄 수 있도록 순백색 매스로 계획하였다. 다양한 레벨은 단순한 동선만이 아니라 앉아 휴식하고 사색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추모 벽은 동선을 지지하는 구조체이기도 하다.

표 6. 모형사진





본 현대 추모공간의 유형별 특성.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2023.

2. 김재원, 윤성호. 생성적 사유 관점의 현대 추모 공간 특성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19(3), 2024
3. 강수현. 체험적 기법을 활용한 세월호 추모 공간 디자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2016
4. 박진경. 공간시나리오를 통한 서대문 메모리얼 계획 임시정부기념관과 서대문형무소의 연결을 통해.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2025
5. 김민성. 건축적 시퀀스를 적용한 추모공간 계획 : 남영동 대공분실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2020

## 5. 결론

탑, 조형물, 공원으로 이루어진 소방관 추모 공간이 아니라,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건축 공간을 경험할 수 있는 소방관 추모 공간 설계안을 제안하였다. 시나리오를 빛과 공간으로 고찰하고 이를 건축 요소와 체험의 관점에 집중하기 위해 가상 대지에 추모 공간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소방관을 추모하는 공간이 빛을 체험하며 순직한 분들을 기억하는 공간으로 구성되었고, 건축 공간에 추모 행위를 담을 수 있었다. 순직 소방관을 위한 추모가 적절한 대지가 선정되어 대지의 환경과 조건을 반영하며 건축 공간을 통한 의미있는 추모 공간 설계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1. 김재원. 질 들뢰즈의 생성(denevir)철학 관점에서 바라